

# 文化(集團)마을과 기존농촌마을의 比較評價에 관한 연구

- 월암 1리와 우항 2리를 중심으로 -

임승빈\* · 조순재\*\* · 박창석\*\*\*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 농촌생활연구소 기획실 ·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A Study on the Comparative Evaluation between the Planned District(Munhwa-Maul) and the Existing District in Korean Rural Village : The Cases of Wolam-1-Ri and Woohang-2-Ri

Im, Seung-Bin\* · Cho, Soon-Jae\*\* · Park, Chang-Su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l Univ.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Graduate School, Seoul Nat'l Univ.

### ABSTRACT

As a basic research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rural villages and the enhancement of the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intends to compar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residents in the planned districts(Munhwa-Maul) and the existing districts in the two rural villages, Wolam-1-Ri and Woohang-2-Ri.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three types of reorganization of the rural villages are identified : addition of the new residential site to existing village, development of a new village in a new site, redevelopment of existing village.
- 2) The residents have low degrees of satisfaction at medical facilities, park and green spaces, public open spaces.
- 3) The rates of residents who think their village territory include both the planned and the existing district is higher in the Woohang-2-Ri than in the Wolam-1-Ri.
- 4) 57.6% of the farm householders in the two planned districts think the lot sizes are small. But the majority of the residents think the sizes of their houses are adequate.
- 5) A large number of residents show positive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the planned district.
- 6) Since the majority of the residents(about 70%) in the two planned districts are not farm householders, new strategies need to be developed to induce more farm householders to the planned district.

## I. 研究의 背景 및 目的

1960년대 이후의 공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농촌은 급격한 離農現象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농촌마을은 마을규모가 과소화되었으며, 주택, 상·하수도,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의 수준은 도시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주거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의 농촌마을계획이 요구된다. 즉, 생활권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기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농촌마을을 재정비(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재정비(통합)과정에서 바람직한 농촌마을 공간구조, 주택 및 대지의 규모,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마을계획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농촌마을을 散在村落, 散居村落, 集居村落, 密居村落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을 고려하여 新農村, 村落移轉, 村落整備 등의 다양한 농촌마을 재정비기법을 제시하고 있다(日本建築學會 編, 1989). 또한 농촌마을 移轉에 기초한 농촌마을 통합사업을 생활환경의 변화, 직업 및 가족구성 변화, 지역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木村儀一, 浦郎一, 1975). 영국에서는 농촌마을공간구조의 변화를 현상유지형, 확장형, 축소형, 신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Roberts, 1987).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1972년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주택개선사업, 도서 및 오지개발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문화(집단)마을 정비사업(이하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기술함)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단위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농촌마을 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농림수산부에서 조성한 문화마을과 연결한 기존농촌마을을 비교평가하고자 하며, 이는 농촌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농촌마을 재정비(통합) 기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 II. 研究方法

본 연구는 문화마을과 문화마을에 연결한 기존 농촌마을을 조사마을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마을은 현재(1994년 11월) 주민입주가 거의 완료된 계룡문화마을(충남 공주군 계룡면 월암 1리)과 우천문화마을(강원 횡성군 횡성면 우항 2리)을 선정하였다. 기존농촌마을은 문화마을에 연결한 월암 1리마을과 우항 2리마을을 선택하였고, 이들 마을들을 기존 월암리마을과 기존 우항리마을로 정의하였다(〈그림 2〉참고).

집단마을 기본계획서(공주군 外, 1991; 횡성군 外, 1991) 등의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출장소 방문 등을 통해 두 문화마을의 구체적인 개발현황을 파악하였다. 설문지는 문화마을(계룡문화마을, 우천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월암 1리마을, 우항 2리마을)에 각각 30부씩 할당하였다.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내의 각 가구를 무작위로 방문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해 개별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와 주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주민인터뷰는 1994년 11월 1일(월암 1리)과 1994년 11월 8일(우항 2리)에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설문조사내용은 주거환경의 만족도, 주거환경시설(교육, 의료, 상·하수도 등)의 만족도,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평가, 우리마을로 인식하는 범위, 주경작지까지의 도달시간(보행), 개인적 특성(직업, 연령, 소득 등), 以前居住地 등이며, 주민인터뷰를 통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우리마을로 인식하는 범위에 대한 이유,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리 전체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다음,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을 각각 구분하여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마을만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III. 農村開發計劃/事業의 變化와 文化마을 造成事業

### 1. 農村開發計劃/事業의 變化

우리나라에서 농촌마을환경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내무부가 주관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한 1972년 이후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주택개선사업, 도서 및 오지개발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의 여러 사업이 전개되었다(이정환 외, 1993).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촌개발계획/사업은 계획/사업대상규모에 따라 단위주택(주택개선사업), 농촌마을(취락구조 개선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면지역(도서 및 오지개발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군지역(군건설종합개발계획, 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시·군농어촌발전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A형은 新村型으로 택지개발을 통해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는 것이다. B형은 개선 및 합촌형으로 도로와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노후불량주택은 재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의 대부분이 해당되며, C형은 정돈형으로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으나, (1) 농촌마을 특성의 반영, (2) 경작지까지의 연결성, (3)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5년 들어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패키지개념(package project)을 도입하여 기초마을 단위에 단위사업(주

택개량, 상·하수도 정비, 주택내부 구조개선, 오염소하천 정비 등)을 집약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택개선사업의 경우 내무부(1976년), 농림수산부(1983년) 등에서 추진해왔으며, 주택개선사업 내용으로는 주택 신·개축, 지붕개량, 입식부엌, 목욕탕, 불량변소 개량 등이 포함된다. 주택개선사업은 마을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보다는 단위주택의 개량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단위계획으로는 도서 및 오지개발계획[내무부:1986년(도서개발계획), 1988년(오지개발계획)]과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농림수산부:1990년)이 수립되었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면단위계획으로서 단위 마을환경의 개선보다는 면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면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소득원개발의 세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와 오지로 지정된 면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1991년부터 마을단위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농림수산부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다.

군단위계획으로는 군건설종합개발계획(건설교통부:1963년), 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농림수산부:1985년), 시·군 농어촌발전계획(농림수산부:1990년)이 수립되었다. 특히 농림수산부주관하에서 수립되는 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과 시·군농어촌 발전계획은 농어촌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

< 표 1 > 농촌개발계획/사업의 변화

구 분	농 촌 개 발 계 획 / 사 업	주관부서	농 촌 개 발 계 획 / 사 업 내 용	계획/사업규모
1972년 이전	○군건설종합계획(1963)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군 지 역
1972 - 1980	○취락구조개선사업(1972)	내 무 부	○농촌시범마을조성 - 신촌형(A형), 개선형(B형), 정돈형(C형) ○기초마을에 패키지개념(package project)을 도입(1995)	농촌마을
	○주택개선사업(1976)	내 무 부	○농촌시범주택건립과 표준설계도 작성 보급	주 택
	○주택개선사업(1983)	농림수산부		
1980 - 1991	○도서개발계획(1986)	내 무 부	○면단위 개발계획 수립	면 지 역
	○오지개발계획(1988)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1990)	농림수산부	○군단위 개발계획 수립	군 지 역
	○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1986)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1990)	농림수산부		
1991년 이후	○문화마을 조성사업(1991)	농림수산부	○기존 읍·면소재마을에 혼주형 문화마을 조성(계룡문화마을, 우천문화마을 등)	농촌마을
	○도농통합(1994)	건설교통부	○시와 인접 군지역의 통합	시 + 군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및 후속적인 시행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農村마을 整備유형과 文化마을 造成事業/聚落構造 改善事業

농촌마을 정비유형은 농촌마을의 정비방식에 따라 (1) 기존 농촌마을로의 통합형, (2) 농촌마을 독립형, (3) 현지마을 정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그림 1〉 및 〈표 2〉), 기존 농촌마을로의 통합형은 농촌마을의 정비목적/방향에 따라 ① 散在農家의 통합형, ② 주변지역 비농가 유입형으로 나눌 수 있다. 농촌마을 독립형은 기존마을이 없는 자연녹지 혹은 농경지에 독립된 기능을 지닌 새로운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① 散在農家를 통합하는 방안, ② 농가 및 비농가를 유입하는 방안으로 세분할 수 있다. 농촌마을 독립형의 경우 바람직한 농촌마을기능, 중심마을(도시)과의 관계, 적절한 사업부지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지마을 정비형은 마을정비수준에 따라 마을재개발, 마을정비, 주택개량으로 세분할 수 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대식 주택,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편익시설 배치와 더불어 경지정리, 용

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과 도로, 유통, 소득시설의 집중지원 및 개발을 통해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전원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이 목적이다(농림수산부, 1994a; 농림수산부, 1994b).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혼주화 및 신개발에 따른 농촌마을 규모의 증가로 주거환경의 質的 改善과 定住性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민외에도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며, 사업대상마을을 혼주화가 용이한 도시근교 읍·면 소재지의 농촌중심마을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변지역 비농가 유입형에 속하되, 기존 농촌마을과의 관계에 따라 기존 중심마을로의 통합형(계룡문화마을, 우천문화마을 등)과 농촌마을 독립형(어모문화마을<금릉군외,1992>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新村型(A型)은 마을재개발에 의한 현지마을 정비형(북현리마을이, 산평 1리 마을 등)과 기존 농촌마을로의 통합형(궁말마을 등), 散在農家를 통합하는 농촌마을 독립형(한일마을, 제촌마을, 외사 3리 마을, 능국리 마을, 양촌리 마을, 백안 3리 마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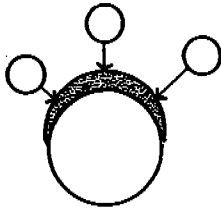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B형(칠산마을, 북전마을, 목림마을 등)과 C형(죽모마을 등)은 현지

< 표 2 > 농촌마을 정비유형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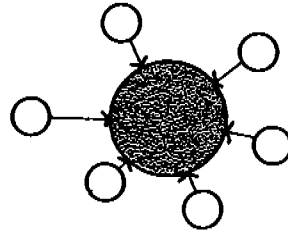
구 분	세 부 유 형	주 관 부 서	
		내 무 부*	농 수 산 부
기존 농촌마을로의 통합형	○ 散在農家 통합	궁말마을 등	
	○ 농가 및 비농가 유입		계룡문화마을(91)** 우천문화마을(91)**
농촌마을 독립형	○ 散在農家 통합	한일마을, 제촌마을, 외사3리마을 능국리마을, 양촌리마을, 당하동 마을, 백안3리마을 등	
	○ 농가 및 비농가 유입		어모문화마을(92)**
현지마을 정비형	○ 마을재개발	북현리마을, 산평1리마을 등	
	○ 마을정비	칠산마을, 북전마을, 목림마을, 죽 모마을 등	
	○ 주택개량(주택개선사업)	농촌주택개선사업(76)	농촌주택개선사업(83)

註 \* :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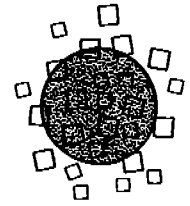
\*\* :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해당됨.



기존 농촌마을로의 통합형



농촌마을 독립형



현리마을 정비형

< 그림 1 > 농촌마을 정비유형

마을 정비형의 마을정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IV 研究結果

##### 1. 계룡文化마을과 우천文化마을의 開發現況

###### 1) 기존농촌마을과 문화마을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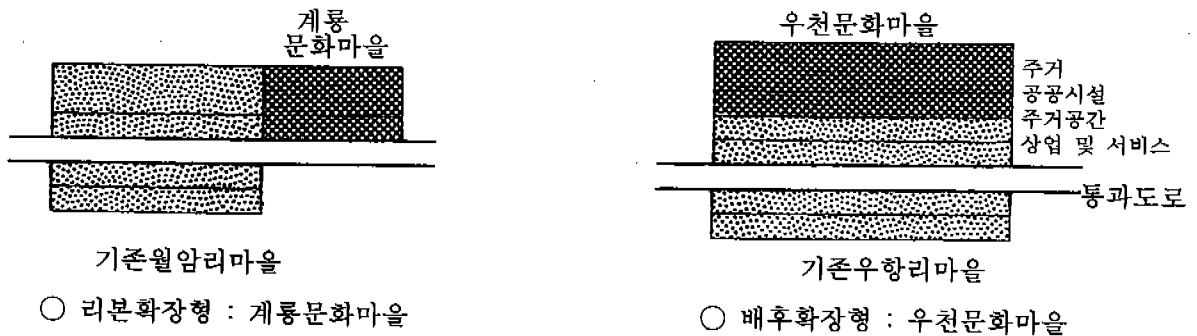
기존 월암리마을과 기존 우항리마을은 모두 통과도로를 따라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있는 리본형이며, 모두 통과도로에 면하여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이면에 주거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계룡문화마을은 통과도로에 면하면서 기존 월암리마을과 연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더욱 길어진 리본형태를 이루므로 리본확장형으로 볼 수 있다. 우천문화마을은 기존 우항리마을의 背後에 위치하므로 배후확장형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계룡문화마을의 경우 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통과도로에 면하여 배치되어 접근성과 인지도는

양호한 반면, 공간구성상 기존 월암리마을과의 물리적 통합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천문화마을은 공공시설과 근린시설이 기존 우항리마을의 배후에 위치하여 인지도 및 접근성은 낮으나, 기존 우항리마을과의 물리적 통합성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 2) 문화마을의 토지이용현황

계룡문화마을과 우천문화마을의 사업구역내 토지이용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두 문화마을의 토지이용현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표 3). 주택용지가 46.3%(계룡문화마을) 및 47.9%(우천문화마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차장 및 도로[20.5%(우천문화마을), 25.4%(계룡문화마을)], 공공시설용지[12.6%(계룡문화마을), 12.8%(우천문화마을)], 녹지 및 사면[12.5(계룡문화마을)%, 14.4%(우천문화마을)] 등이 나타났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우천문화마을의 1필지만이 분양되어 연립주택으로 사업계획중이고,



< 그림 2 > 기존농촌마을과 문화마을(계룡문화마을과 우천문화마을)의 배치

우천문화마을의 2필지와 계룡문화마을의 1필지는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3) 문화마을 정비사업의 사업계획내용과 사업결과

두 문화마을의 사업계획내용과 실제 사업결과를 비교할 때, 두 문화마을 모두에서 대부분의 농업생산관련시설(집중생산시설지역, 가공포장시설 등)은 취소되었고, 또한 기존농촌마을 정비측면에서 계획한 공원 및 놀이터(체육공원)시설은 취소되고 도로정비는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특히, 기존 월암리마을에서는 기존농촌마을에 인

접하여 배치된 오폐수처리장과 마을내부의 기존도로를 시멘트로 포장만 하는 형식적인 도로정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생산기반시설로서 계룡면 월암리, 금대리, 경천리 등에 11.2ha의 채소종합단지 조성하고 있으나(공주군,1993), 월암리에는 1.1ha(4농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농업기반확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농업기반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마을 정비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들이 더 많이 나타난 점은 매우 흥미롭다(<표 8> 참고).

< 표 3 > 문화마을의 토지이용현황

(단위 : 坪)

구 분		계룡문화마을(%)	우천문화마을(%)
문화마을 사업면적		17,590(100%)	20,108(100%)
토지 이용 현황	주 택 용 지 <sup>1)</sup>	8,127(46.3%)	9,627(47.9%)
	공공시설용지	2,225(12.6%)	2,573(12.8%)
	근린생활시설용지 <sup>2)</sup>	562 (3.2%)	893 (4.4%)
	주차장 및 도로	4,443(25.4%)	4,115(20.5%)
	녹지 및 사면	2,203(12.5%)	2,900(14.4%)

註 : 1) 계룡문화마을은 단독주택용지 57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조성하였고, 우천문화마을은 단독주택용지 55필지,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조성하였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국, 슈퍼마켓, 이발소 등을 의미한다.

< 표 4 >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계획내용과 사업결과 비교

구 분		취 소 된 사 업 계 획	축 소 된 사 업 계 획
월암1리	계룡문화마을	○집중생산시설지역 ○천천후자동화원예단지 ○유실수단지 ○가공포장시설	○농산물유통센터
	기존 월암리마을	○체육공원	○도로정비
우항2리	우천문화마을	○집중생산시설지역 ○가공포장시설 ○중앙관리시설* ○공동이용시설* ○보관창고	-----
	기존 우항리마을	○공원 및 놀이터	○도로정비

註 \* : 중앙관리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집중생산시설지역에 포함되는 시설이다.

그리고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표 6〉참고), 기존농촌마을내의 공원 및 놀이터(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는 남녀별, 연령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세대주의 직업도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업농가의 비율이 세대주의 직업이 농업인 비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설문응답자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 표 5 〉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계룡면 월암1리		우천면 우황2리	
		계룡문화마을	기존 월암리마을	우천문화마을	기존 우황리마을
성 별	남 성	17(54.8%)	17(60.7%)	13(41.9%)	12(40.0%)
	여 성	13(45.2%)	11(39.3%)	18(59.3%)	18(60.0%)
연 령	20 - 29	1(3.2%)	1(3.6%)	7(22.6%)	2(6.7%)
	30 - 39	12(38.8%)	4(14.3%)	8(25.8%)	10(33.3%)
	40 - 49	8(25.8%)	6(21.4%)	2(6.5%)	4(13.3%)
	50 - 59	5(16.1%)	4(14.3%)	10(32.3%)	9(30.0%)
	60세 이상	5(16.1%)	13(46.4%)	4(12.9%)	5(16.7%)
년간 가구 총소득 <sup>1)</sup>	500만원 이하	5(16.1%)	15(57.7%)	3(9.7%)	6(20.7%)
	500-750만원	2(6.5%)	3(11.5%)	2(6.5%)	5(17.2%)
	750-1000만원	2(6.5%)	3(11.5%)	6(19.4%)	2(6.9%)
	1000-1500만원	8(25.8%)	3(11.5%)	8(25.8%)	9(31.0%)
	1500-2000만원	6(19.4%)	2(7.7%)	4(12.9%)	2(6.9%)
	2000-2500만원	6(16.1%)	-----	6(19.4%)	5(17.2%)
	2500만원 이상	3(9.7%)	-----	2(6.5%)	-----
세대주의 직업	농 업	8(26.7%)	19(67.9%)	10(32.3%)	10(33.3%)
	회사원(과장 미만)	2(6.7%)	2(7.1%)	3(9.7%)	-----
	공무원(5급 미만)	6(16.7%)	1(3.6%)	7(22.6%)	1(3.3%)
	도·소매·서비스업	3(10.0%)	4(14.3%)	4(12.9%)	11(36.7%)
	기능직	5(16.7%)	-----	4(12.9%)	4(13.3%)
	기업인(개인사업)	1(3.3%)	-----	1(3.2%)	-----
	회사중역(과장 이상)	3(10.0%)	-----	2(6.5%)	-----
	자유업(예술가 등)	2(6.7%)	-----	-----	1(3.3%)
	무직(청년퇴직)	1(3.3%)	2(7.1%)	-----	3(10.0%)
가구유형 <sup>2)</sup>	전업농가	7(24.1%)	16(57.1%)	8(25.8%)	7(23.3%)
	겸업농가	7(24.1%)	6(21.4%)	7(22.6%)	7(23.3%)
	비농가(무직 포함)	15(51.7%)	6(21.4%)	16(51.6%)	16(53.3%)
주 택	자 가	26(83.9%)	25(89.3%)	25(80.6%)	24(80.0%)
	자가 + 전세	3(9.7%)	-----	1(3.2%)	-----
	전 세	2(6.5%)	2(7.1%)	5(16.1%)	2(6.7%)
	월 세	-----	1(3.6%)	-----	4(13.3%)
거 주 기 간 <sup>3)</sup>	5년 미만	-----	2(6.9%)	-----	6(19.4%)
	5년-10년 미만	-----	-----	-----	3(9.7%)
	10년-20년 미만	-----	3(10.7%)	-----	4(12.9%)
	20년-30년 미만	-----	7(24.1%)	-----	7(22.7%)
	30년 이상	-----	15(51.8%)	-----	10(32.3%)

註 : 1)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1년 총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2) 가구유형에서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비농가의 구분은 현재 마을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가족구성원의 직업과 경작유무를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3) 거주기간에서 문화마을의 거주기간은 1년미만으로 나타나 생략하였다.

### 3. 農村住居環境 滿足度 分析

설문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암 1리 혹은 우항 2리의 전체모습을 머리속에 떠올리게 한 후, 해당 리 전체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매우 불만족(1)-불만족(2)-그저그렇다(3)-만족(4)-매우 만족(5)]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문대상자가 거주하는 문화마을 혹은 기존농촌마을만을 머리속에 떠올리게 하고 해당 거주마을만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매우 불만족(1)-불만족(2)-그저그렇다(3)-만족(4)-매우 만족(5)]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표 6>, 두 문화마을 모두에서 문화마을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해당 리 전체보다 높게 나타났고, 계룡문화마을이 우천문화마을보다 해당 리 전체 및 문화마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계룡문화마을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3.84, 해당 리 전체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3.62로 나타났으나, 우천문화마을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3.42, 해당 리 전체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3.33으로 나타났다. 기존농촌마을의 경우, 기존 월암리마을(3.45)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해당 리 전체(2.86)보다 높았으나, 기존 우항리마을의 주거환경 만족도(2.83)는 해당 리 전체(3.43)보다 낮

게 나타났다(표 6).

해당 리 전체에서의 주거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표 6), 월암 1리와 우항 2리(기존농촌마을과 문화마을) 모두에서 의료시설, 공원·녹지시설, 공동휴식시설에 대한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인접도시와의 접근성, 행정시설, 금융시설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 모두에서는 의료시설, 공원·녹지시설, 공동휴식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들 시설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간의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기존농촌마을과 문화마을간의 주거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P<0.05)를 실시하였다(표 6). 월암 1리에서는 교육시설, 농업관련시설에서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간에 차이가 나타났고, 우항 2리에서는 교육시설, 금융시설에서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간에 차이를 보였다. 문화마을에서의 교육시설에 대한 불만족도가 기존농촌마을에 비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시설의 수준차이라기보다는 인근 시·군지역에서 문화마을로 이주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

< 표 6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T-test

구 분	계 룽 면 월 암 1 리		우 천 면 우 항 2 리		
	계룡문화마을	기존 월암리마을	우천문화마을	기존 우항리마을	
주거환경의 만족도(해당 리 전체)	3.62	2.86	3.33	3.43	
주거환경의 만족도(해당 마을)	3.84	3.45	3.42	2.83	
주거환경 시설 (해당리 전체)	교육시설	2.23*	3.18*	2.40**	2.97**
	의료시설	2.17	2.74	2.07	2.47
	상업시설	2.79	3.29	2.33	2.93
	금융시설	3.63	3.36	3.00**	3.53**
	행정시설	3.41	3.82	3.43	3.70
	공원·녹지	2.90	2.29	2.67	2.31
	상·하수도	2.97	2.61	3.83	3.65
	농업관련시설	2.81**	2.13**	2.83	3.29
공동휴식시설	2.71	2.27	2.28	2.46	
인접도시와의 접근성	3.17	3.62	3.39	3.77	

註 : 1)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불만족(2)-그저그렇다(3)-만족(4)-매우 만족(5)]의 5점 척도의 응답을 평균한 것이다.  
 2) \* : P < 0.01, \*\* : P < 0.05



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우리마을의 인식범위에 대한 분석

우리마을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① 기존농촌마을만, ② 문화마을만, ③ 기존농촌마을과 문화마을을 모두 포함한 범위로 각각 구분하여 설문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한 결과<표 7>,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을 모두 포함하여 우리마을로 인식하는 주민이 월암 1리의 경우 43.3%(계룡문화마을)와 46.4%(기존 월암리마을)로 나타났고, 우항 2리의 경우 64.5%(우천문화마을)와 90%(기존 우항리마을)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마을의 경우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을 모두 포함하여 우리마을로 인식하는 주민의 비율이 기존농촌마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월암 1리와 우항 2리의 주민인터뷰를 통해 제시된 우리마을 인식범위의 근거로는 기존농촌마을주민과 문화마을주민간의 친분정도, 동일 행정구역여부, 공간적인 연결성(물리적인 인접)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암 1리와 우항 2리에서의 우리마을 범위에 대한 주민인식의 차이는 사회적 교류(기존마을주민과 문화마을주민간의 친분관계)와 공간적인 소속감(동일 행정구역여부), 공간적인 연결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5.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설문응답자에게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표 8>, 월암 1리에서는 찬성이 50%(기존 월암리마을)와 64.5%(계룡문화마을)로 나타났고, 우항 2리에서는 67.8%(우천문화마을)와 80%(기존 우항리마을)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암 1리/우항 2리 마을주민의 다수(65.6%)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우항 2리 주민들이 월항 1리주민보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기존 우항리마을에 비해 기존 월암리마을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찬성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1) 계룡문화마을을 우리마을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문화마을의 개발에 부정적이고 (2) 문화마을사업으로 인한 기존 월암리마을의 정비에 대한 기대정도가 높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설문대상자들에게 그 이유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표 9>, 월암 1리와 우항 2리 전체에서 반대이유로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택지분양비 및 주택건축비 등)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지인의 유입에 의한 위화감 증대(30%), 마을주민의 토지매수와 보상비용(20%), 기존 농촌문화 훼손(16.7%)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민들에 대한

< 표 7 >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에서의 우리마을 인식범위의 비교

구 분	계룡면 월암1리		우천면 우항2리	
	계룡문화마을	기존 월암리마을	우천문화마을	기존 우항리마을
문화마을만	53.3%	---	29.0%	---
기존농촌마을만	3.3%*	53.6%	6.5%*	10.0%
문화마을+기존농촌마을	43.3%	46.4%	64.5%	90.0%

註 \* : 문화마을주민들중에서 기존농촌마을만을 우리마을로 인식하는 이유는 해당 응답자가 (1) 기존농촌마을에서 문화마을로 이주하였고, (2) 문화마을에서의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 이어서 문화마을을 아직 우리마을로 인식하지못하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 응답율(%) = (해당항목의 응답자 수 / 총응답자 수) \* 100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제도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농촌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 우항리마을에서 토지매수와 보상비용에 대한 반대가 기존 월암리마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농가의 철거를 통한 우천문화마을의 개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월암 1리와 우항 2리 전체에서 문화마을 정비사업의 찬성이유로는 농촌마을 경관의 개선(39.6%),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28.6%), 주택건축시 융자금 지급(8.7%), 인구집중효과(7.7%), 깨끗하고 편리한 주택 및 주거공간(6.6%) 등으로 나타났다(표 9). 따라서 월암 1리와 우항 2리의 마을 주민들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마을발전효과(농촌

마을경관 개선, 인구집중효과, 농업관련 시설정비)와 생활환경개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 깨끗하고 편리한 주택 및 주거공간, 공원·녹지의 확충), 경제적 지원 및 보상(주택건축시 융자금 지원, 수용토지의 보상)으로 인해 찬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 이사의도 및 이사선호지역 분석

경제적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사하겠느냐는 설문조사결과(표 10), 월암 1리와 우항 2리 모두에서 50%이상이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여도 이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두 문화마을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기존농촌마을보다 약간씩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8 >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분석

구 분	계룡면 월암1리		우천면 우항2리	
	계룡문화마을	기존 월암리마을	우천문화마을	기존 우항리마을
매우 찬성	22.6%	17.9%	9.7%	6.7%
찬 성	41.9%	32.1%	58.1%	73.3%
그저그렇다.	29.0%	28.6%	25.8%	10.0%
반 대	3.2%	10.7%	6.5%	10.0%
매우 반대	3.2%	10.7%	---	---

註 : 응답율(%) = (해당항목의 응답자 수 / 총응답자 수) \* 100

< 표 9 >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찬성과 반대이유

구 분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반대이유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찬성이유								
	①	②	③	④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월암	기존	3	3	1	3	5	3	--	7	--	--	1	--
	문화	2	3	2	2	8	3	--	10	1	2	1	1
우항	기존	--	2	3	2	14	--	--	6	--	--	4	1
	문화	--	1	--	3	9	2	1	3	1	3	1	4
합 계 (명)	5	9	6	10	36	8	1	26	2	5	7	6	
(응답율:%)	(16.7)	(30.0)	(20.0)	(33.3)	(39.6)	(8.7)	(1.1)	(28.6)	(2.2)	(5.5)	(7.7)	(6.6)	

註 \* : 반대이유는 ① : 기존 농촌문화의 훼손, ② : 외지인의 유입에 의한 위화감 증대, ③ : 마을주민의 토지매수와 보상비용, ④ :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택지분양비 및 주택건축비 등) 등이며, 찬성이유의 항목은 ㉑ : 농촌마을경관의 개선, ㉒ : 주택건축시 융자금 지급, ㉓ : 수용토지의 보상비, ㉔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 ㉕ : 농업관련 시설의 정비 및 확충, ㉖ : 공원·녹지의 확충, ㉗ : 마을로의 인구집중효과, ㉘ : 깨끗하고 편리한 주택 및 주거공간 등이다.

\*\* : 응답율(%) = (찬성 혹은 반대의 해당 이유의 응답자 수 / 찬성 혹은 반대의 총 응답자 수) \* 100

또한 이사선호지역으로는 인접 市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현재의 조사 마을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 인접 市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적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복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문화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7. 주경작지까지의 평균도달시간(보행)

월암 1리와 우항 2리에서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설문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주경작지까지의 평균도달시간(보행)을 조사하였다. 주경작지까지의 평균도달시간(보행)은 10분 미만이 61.4%(27명)로 가장 높았으며, 10분-20분이 20.5%(9명), 20분 이상이

18.1%(8명)로 나타났다(표 11). 따라서 경작지를 소유한 가구의 대부분(81.9%)은 주경작지가 보행으로 평균 20분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경작지의 평균도달시간(보행)과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가 0.4092(P<0.01)로 나타났고 주경작지 20분이내에 위치할 경우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3.2%(19명)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최소한 보행으로 20분이내에 주경작지가 위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경작지까지의 도달시간(보행)은 농업중심인 단위농촌마을의 생산공간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위한 여러 기준중의 하나로서 활용가능할 것이다.

8. 문화마을내 주택 및 대지규모에 대한 평가

두 문화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및 대지규모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표 11), 현재 20-30평으로

< 표 10 > 이사의도와 이사선호지역

구 분		계룡면 월암1리		우천면 우항2리	
		계룡문화마을	기존 월암리마을	우천문화마을	기존 우항리마을
이사의도	이사를 하겠다.	32.3%	21.4%	41.9%	26.7%
	이사를 안하겠다.	61.2%	67.9%	51.6%	63.5%
	잘모르겠다.	6.5%	10.7%	6.5%	10.0%
이사선호 지역	인접 市지역	57.1%	58.3%	55.6%	35.3%
	문화마을내의 다른 집	14.3%	12.5%	11.1%	17.7%
	기존농촌마을(월암리, 우항리)	14.3%	4.2%	----	29.3%
	주변지역의 농촌마을	14.3%	20.8%	33.3%	17.7%
	기타지역(서울시)	----	4.2%	----	----

註 : 응답율(%) = (해당항목의 응답자 수/ 총 응답자 수) \* 100

< 표 11 > 주경작지까지의 평균도달시간(보행)과 만족도의 관계

구 분		주경작지까지의 도달시간에 대한 만족도					상관관계	
		매우 만족	만 족	그저그렇다.	불 만족	매우 불만족	구 분	만족도
주경작지 까지의 평균도달 시간(보행)	10분 미만	2	15	6	3	1	평균도달 시 간 (보 행)  ** : P<0.01	0.4092**
	10 - 20분	1	1	4	1	2		
	20 - 30분	--	1	1	3	1		
	30분 이상	--	--	1	1	--		
	합 계(%)	3(6.8)	17(38.6)	12(27.3)	8(18.2)	4(9.1)		

註 : 응답율(%) = (각각의 주경작지까지의 도달시간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자 합/총 응답자 수) \* 100

건축되고 있는 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설문응답자[농가(겸업농 포함)와 비농가]의 4.8%만이 작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100평내외로 조성된 대지규모에 대해서는 농가(겸업농 포함)와 비농가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chi^2 = 13.218, P < 0.001$ ), 특히 농가의 57.6%[19명; 백분율(%) = (농가에서 대지규모가 작거나 매우 작다는 응답자의 합계/농가의 응답자 총 합계) \* 100]는 대지규모를 작다(‘매우 작다’는 응답 포함)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문화마을내 비농가의 82.7%는 대지규모가 적당하다(‘크다’는 응답 포함)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문화마을내 농가의 경우 대지규모가 작다는 응답(57.6%)이 많았고 텃밭, 창고 등의 부속사 등이 가능한 대지규모를 원하였으므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시 농가는 최소 120평 이상을 비농가는 100평 정도로 대지를 조성하되, 농가와 비농가를 고려하여 차등분양합이 바람직하다. 문화마을내 농가와 비농가의 배치, 농가의 비율, 대지규모의 결정, 대지의 차등분양방법 등은 농가의 입주비율, 입주농가의 농업유형, 인접지역의 대지규모, 농가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9. 문화마을주민의 以前居住地와 세대주의 직업

1) 문화마을주민의 以前居住地 분석

두 문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문화마을로 이사하기 전에 거주하였던 주소를 직접 적도록 하는 자유응답 설문조사를 하였다. 계룡문화마을의

경우 以前居住地로서 공주군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존 월암리마을(23.3%), 서울·인천시(10.0%), 공주시(6.7%) 등으로 나타났다. 우천문화마을에서는 기존 우항리마을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인천시(16.2%), 인접군(25.9%:황성군,파주군,정산군,원주군 등) 등으로 나타났다(표 13). 기존 농촌마을에서의 입주비율이 계룡문화마을(23.3%)보다 우천문화마을(38.7%)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 우천문화마을이 기존 우항리마을의 배후지를 개발하면서 철거한 기존 농가가 대부분 문화마을에 입주하였고, (2) 기존 월암리마을주민보다 기존 우항리마을주민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데(표 5) 참고)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문화마을주민의 以前居住地와 세대주 직업간의 관계분석

두 문화마을의 설문응답자를 중심으로 세대주의 직업과 以前居住地를 비교분석한 결과(표 14), 전체적으로 두 문화마을에서 세대주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가 26.7%(계룡문화마을) 및 32.3%(우천문화마을)로 나타났으며, 겸업농을 포함한 농가도 전체 설문응답가구의 48.2%(계룡문화마을)과 48.4%(우천문화마을)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즉 두 문화마을에서 세대주의 직업이 농업인 가구보다 비농업인 경우가 73.3%(계룡문화마을) 및 67.7%(우천문화마을)로 나타났는데, 이는 (1) 세대주의 직업이 비농업인 가구가 농업인 가구보다 경

< 표 12 > 문화마을내 주택 및 대지규모에 대한 평가

구 분	주 택 규 모		합 계	대 지 규 모		합 계
	농가(겸업농)	비 농 가		농가(겸업농)	비 농 가	
매우 크다.	---	1	1(1.6%)	---	---	---
크 다	3	6	9(14.5%)	---	4	4(6.4%)
적당하다.	30	19	49(79.0%)	14	20	34(54.8%)
작 다.	---	3	3(4.8%)	16	5	21(33.9%)
매우 작다.	---	---	---	3	---	3(4.8%)
Chi-Square	df = 1, $\chi^2 = 0.417$			df = 1, $\chi^2 = 13.218^{***}$		

註 : \*\*\* : P < 0.001

< 표 13 > 문화마을주민의 以前居住地 : 계룡문화마을과 우천문화마을

문화마을 거주 이전의 거주지		계룡문화마을	우천문화마을
市	서울시, 인천시	3(10.0%)	5(16.2%)
	공주시	2(6.7%)	-----
	대전시	1(3.3%)	1(3.2%)
	원주시	-----	1(3.2%)
	제천시	-----	1(3.2%)
	춘천시	-----	1(3.2%)
	소 계	6(20.0%)	9(29.0%)
기존농촌마을(월암리/우항리)		7(23.3%)	12(38.7%)
인접 군지역(공주군/횡성군 등)		17(56.7%)	8(25.9%)
인접 읍지역(횡성읍)		-----	2(6.5%)

註 : 계룡문화마을의 인접 군지역은 공주군을 의미하며, 우천문화마을에서의 인접 군지역은 횡성군, 파주군, 정산군, 원주군 등을 의미한다.

< 표 14 > 以前居住地와 세대주의 직업간의 관계

세대주의 직업	계룡문화마을					우천문화마을				
	서울·인천	市지역 <sup>2)</sup>	월암리	공주군	합계(%)	서울·인천	市지역 <sup>3)</sup>	우항리	인접 군 <sup>4)</sup>	합계(%)
농업	--	---	1	7	8(26.7)	--	--	6	4	10(32.3)
비농업 <sup>1)</sup>	1	3	6	10	20(66.7)	5	4	6	6	21(67.7)
무 직	2	--	--	--	2(6.6)	--	--	--	--	--
합 계	3(10.0)	3(10.0)	7(23.3)	17(57.7)	30(100)	5(16.2)	4(12.9)	12(38.6)	10(32.3)	31(100)

註 : 1) 세대주의 직업에서 비농업은 농업과 무직을 제외한 도·소매·서비스업, 기능업, 회사원, 공무원 등의 직업을 의미한다.

2) 계룡문화마을의 市지역은 공주시와 대전시를 의미한다.

3) 우천문화마을의 市지역은 대전시, 원주시, 제천시, 춘천시를 의미한다.

4) 인접 읍·군은 횡성읍과 횡성군, 파주군, 정산군, 원주군 등을 의미한다.

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있고, (2)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3) 경작지까지의 거리와 대지규모 등의 제한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겸업농을 포함한 농가의 입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대책 수립과 문화마을 사업부지의 선정 등이 요구된다.

### V. 要約 및 結論

1972년 이후 농촌개발계획/사업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 주택개선사업, 도서 및 오지개발계획, 농

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농촌마을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 재정비(통합)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문화마을과 연결한 기존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평가, 우리마을 인식범위 등을 비교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촌마을의 정비유형은 농촌마을 정비방식에 따라 ① 기존 농촌마을로의 통합형, ② 농촌마을 독립형, ③ 현지마을 정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고). 기존 농촌관련사업중에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농촌마을 정비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농가 및 비농가 유입을 토대로 하되, 기존농촌마을과의 관계에 따라 기존 농촌마을로의 통합형과 농촌마을 독립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서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 모두에서 의료시설, 공원·녹지시설, 공동휴식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6〉 참고). 따라서 의료시설, 공원·녹지시설, 공동휴식시설 등에 대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들 시설들이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도록 계획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3) 우리마을 인식범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 모두를 우리마을로 인식하는 주민이 월암리의 경우 43.7%(계룡문화마을)와 46.4%(기존 월암리마을)로 나타났고, 우항 2리에서는 64.5%(우천문화마을)와 90%(기존 우항리마을)로 나타났다(〈표 7〉 참고). 이러한 월암 1리와 우항 2리에서의 우리마을 인식범위의 차이는 문화마을과 기존농촌마을간의 사회적 교류와 공간적인 소속감, 공간적인 연결의 긴밀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월암 1리와 우항 2리주민 다수(65.6%)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고). 그러나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이유로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33.3%), 외지인의 유입에 따른 위화감 증대(30%)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따라서 농민들

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제도적 정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입주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방향으로 판단된다.

5) 문화마을주민들의 주택 및 대지규모에 대한 평가결과, 현재의 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설문응답자의 79%가 적당하다고 평가하였다(〈표 12〉 참고). 그러나 대지규모의 경우 농가(겸업농 포함)의 57.6%가 현재의 대지규모가 작으며 텃밭, 부속사신축 등이 가능한 대지규모를 원하였다. 따라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시 일률적으로 100평 정도의 대지를 분양하기보다는 농가는 최소 120평 이상, 비농가는 100평 정도로 차등을 두어 대지를 조성하고 분양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축사와 공동비닐하우스단지가 필요하다.

6) 문화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세대주 직업과 以前居住地를 분석한 결과(〈표 13〉 및 〈표 14〉 참고), 문화마을내 세대주의 직업이 농업인 가구는 약 30%에 불과하고 겸업농을 포함한 농가도 전체 설문응답가구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겸업농을 포함한 농가의 입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대책 수립과 적절한 문화마을 사업부지의 선정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문화마을과 연결한 기존농촌마을간의 비교평가를 통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한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농촌마을조성과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겨야 하겠다.

## 引用文獻

- 공주군(1993) 계룡지구 정주생활권 집단마을 및 시설단지계획 추진현황.
- 공주군,농어촌진흥공사(1991) 계룡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금릉군,기획기술지원단(1992) 어모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농림수산부(1994a) '94 농어촌 정주기반조성사업 실시요령.
- 농림수산부(1994b)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 농어촌진흥공사 강원도지사(1994) 우천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 이상문(1991) 서울근교 목현리마을의 취락경관변화에 관한 연구 : 1960년대 이후의 경관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환 外(1993) 농촌계획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농촌경제연구원
- 황성군,농어촌진흥공사(1991) 우천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日本建築學會 編(1989) 建築設計資料集成. Vol 9(地域)
- 木村儀一, 浦郎一(1975) '農村の 部落統合.' 日本農村計劃學會誌 9 : 20-41
- Tae-Yeung You(1986) The patterns of rural development in Korea : 1970's. The Institute of Saemaul
- Brian K. Roberts(1987) Rural Settlement. Macmillan Education